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 영향 요인: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조남희¹, 권기홍^{2*}

¹경운대학교 간호학과, ²영남이공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Influencing factors on problem drinking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college students in Daegu·Gyeongbuk provinces

Nam-Hee Jo¹, Gi-Hong Kwon^{2*}

¹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²Department of Health Care Administration, Yeungnam University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대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각된 스트레스 및 우울이 문제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295명의 대학생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T검정(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과 Scheffe 검정,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및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성별, 학업성적, 주거유형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우울을 예방하는 사회심리적인 접근과 성별, 학업성적, 주거유형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대학생, 문제음주행위,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인구사회학적 특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perceived stress and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in Daegu and Kyungbuk provinces on problem drinking behavior.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95 college students who understood and agreed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conducted questionnaires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depression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he problem drinking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Daegu and Kyungbuk provinces, followed by gender, academic performance, and residential typ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to prevent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gender, academic performance, and residential type in order to prevent problem drinking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 College Student, Problem Drinking Behavior, Perceived Stress, Depressi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술은 인류 역사 속에서 사회적, 문화적, 또는 종교적인 사유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음주도 지나치면 간경변, 심혈관 질환, 소화기 질환, 조기 사망 등 심

*Corresponding Author : Gi-Hong Kwon(ghkwn@ync.ac.kr)

Received March 28, 2018

Accepted April 20, 2018

Revised April 11, 2018

Published April 30, 2018

각한 건강문제를 야기하며 사고, 원치 않는 성격형, 폭력, 학업 문제 등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1,2]. 우리나라의 대학 입학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술을 구입할 수 있는 허용 연령에 해당되어 대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음주를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음주를 대학 생활의 기대되는 행위로서 대학생활의 정체성의 일부분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지만[2], 대학생의 음주량과 폭음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그 비율은 일반 성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에 있으며 문제성음주 경향은 52.6%로 심각한 수준에 달한다[3]. 대학생의 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피해가 심각하지만 대학 내 엄격한 음주 규제 규정이나 음주문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음주 대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는 술에 대해 관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회 초년생으로 처음 진입하는 대학생들이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집단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4].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성인기를 위한 준비의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의 음주문제는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인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업이나 학업상의 손실, 정서적인 문제, 폭력성, 인간관계 등 많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5].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는 사회심리적인 영향과 인구 사회학적인 요인들이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우울은 음주문제에 직·간접적으로 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6,7], 우울 수준이 증가할수록 문제음주 정도가 증가하였다[8,9]. 성별에서는 여자 대학생에 비해 남자 대학생이, 연령은 낮을수록 문제음주 군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자택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경우,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서 문제음주행위가 높았다[7,9].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기독교 청소년들의 경우에서 신앙심이 깊을수록 음주를 절제하였고 성적과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경우에서 음주를 절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또한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하는 대학생들은 음주만 하는 경우 보다 위험음주, 의존음주, 유해음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이와 같이 다수의 연구들이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특성이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되어 왔으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행위의 차이와 사회심리적 특성으로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문제음주행위 간의 관계를 동시에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최근 우리 정부는 ‘음주산행 금지’를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하며, 음주산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6개월간의 대국민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의 정상과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음주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점차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강한 음주문화에 대한 변화의 시작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사이에 있는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는 향후 성인기의 음주습관으로 이어져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요인의 특성에 따르는 대책 방안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변수를 중심으로 문제음주행위 영향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및 문제음주행위를 파악한다.

둘째,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행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및 문제음주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대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각된 스트레스 및 우울이 문제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5년 10월 3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00명의 설문지 중 설문에 응답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5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29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지각된 스트레스 측정도구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SS)는 Cohen, Kamarck, 및 Mermelstein(1983)이 개발한 척도를 Cohen과 Williamson(1988)이 요인분석을 통해 단축형으로 수정한 것으로 이정은(2005)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2]. 총 10문항으로 1~5점 리커트형 척도로 4, 5, 7, 8문항은 역문항이며 점수범위는 10~50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정은(2005)의 연구에서 Chronbach α 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Chronbach α 는 .71이었다[12].

2.3.2 우울 측정도구

우울 척도는 Beck 등(1967)이 임상적인 우울증상을 토대로 개발한 BDI를 이영호(1993)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13]. 이 검사는 정서적, 생리적, 인지적, 동기적 증후군 등을 포함한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0~3점 리커트형 척도이다. 점수범위는 0~6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영호(1993)의 연구에서 Chronbach α 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 Chronbach α 는 .95이었다[13].

2.3.3 문제음주행위 측정도구

문제음주행위는 신행우(1998)가 개발한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음주문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14]. 문제음주행위 하위영역은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 행동상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0~4점 리커트형 척도이며 점수범위는 0~8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음주행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개발 당시 Chronbach α 는 .74이었고 본 연구에서 Chronbach α 는 .94이었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및 문제음주행위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기술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행위의 차이는 T검정(t-test) 또는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검정을 활용하였다.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및 문제음주행위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문제음주행위를 예측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 295명 중 남녀 비율은 남학생이 51.5%로 여학생 보다 많았으며 학년은 3학년이 40.3%, 1학년이 29.5%, 2학년이 19.3%, 4학년이 10.8%였다. 학업 성적은 평점 4.5점을 기준으로 3.0에서 3.5미만이 42.7%, 3.5에서 4.0미만이 37.3%였으며 종교여부는 종교 없음이 50.5%로 많았고 기독교가 22.7%였다. 주거유형은 자가거주가 44.1%, 기숙사 거주가 31.2%였으며 흡연 여부는 비흡연이 73.9%로 Table 1과 같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5)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152	51.5
	Female	143	48.5
Grade	1	87	29.5
	2	57	19.3
	3	119	40.3
	4	32	10.8
	≥ 4.0	38	12.9
Academic performance	3.5~<4.0	110	37.3
	3.0~<3.5	126	42.7
	<3.0	21	7.1
Religion	Christian	67	22.7
	Catholic	27	9.2
	Buddhism	52	17.6
	none	149	50.5
Type of residence	Own family house	130	44.1
	Rented room	67	22.7
	Dormitory	92	31.2
	Relative's home	6	2
Smoking	Yes	77	26.1
	No	218	73.9

3.2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문제음주행위 정도

분석결과 본 연구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26.36점(SD=5.34)이었으며, 우울 점수는 평균 7.41점(SD=10.05)이었고, 문제음주행위 점수는 평균 6.61점(SD=9.20)으로 Table 2와 같다.

Table 2. Perceived stress, depression, problem drinking behavior of subjects (N=295)

Variables	M±SD	Min.	Max.	Range
Perceived stress	26.36 ± 5.34	10	45	10-50
Depression	7.41 ± 10.05	0	44	0-63
Problem drinking behavior	6.61 ± 9.20	0	45	0-80

3.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행위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행위 정도의 차이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문제음주행위는 남성이 여성 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3.727, p<.001) 학년별 차이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9.496, p<.001), Scheffe 사후검정 결과 1학년이 2, 3, 4학년 보다 문제음주행위 정도가 높았다. 학업 성적은 학교 평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14.414, p<.001), Scheffe 사후검정에서 평점 3.5미만인 집단이 3.5이상인 집단 보다 문제음주행위가 높았다. 종교별 문제음주행위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나(F=3.001, p=.031), Scheffe 사후검정에서는 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주거유형별 문제음주행위 정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11.449, p<.001),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자택이나 기숙사에서 주거하는 경우 보다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서 문제음주행위 정도가 높았다. 흡연여부별 문제음주행위의 정도는 흡연 집단이 비흡연 집단 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Table 3과 같다.

Table 3. Difference of problem drinking behavior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5)

Variables	Category	Problem drinking behavior				
		M	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8.48	10.55	3.727	<.001	
	Female	4.62	7.00			
Grade	1 ^a	10.74	11.71	9.496	<.001	a>b
	2 ^b	4.49	7.36			
	3 ^b	5.45	7.75			
	4 ^b	3.44	4.83			
	≥ 4.0 ^a	3.69	7.30			
Academic performance	3.5~<4.0 ^a	3.49	4.47	14.414	<.001	a<b
	3.0~<3.5 ^b	9.00	10.83			
	3.0미만 ^b	13.86	11.93			
Religion	Christian ^a	4.79	6.74	3.001	.031	
	Catholic ^a	9.59	12.36			
	Buddhism ^a	4.83	5.75			
	none ^a	7.50	10.22			
Type of residence	Own family house ^a	7.44	9.26	11.449	<.001	a<b
	Rented room ^{ab}	9.40	11.62			
	Dormitory ^a	2.73	4.10			
	Relative's home ^b	16.83	12.22			
Smoking	Yes	9.26	10.71	2.666	.009	
	No	5.67	8.43			

3.4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문제음주행위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및 문제음주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Table 4와 같다. 문제음주행위와 지각된 스트레스(r=.251, p<.001), 문제음주행위와 우울(r=.517, p<.001)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r=.469, p<.001)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상관계수는 0.469로 0.8보다 낮게 나타나 두 변수 모두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roblem drinking behavior, perceived stress and depression

Variables	X1	X2	X3
Problem drinking behavior	1		
Perceived stress	.251**	1	
Depression	.517**	.469**	1

**p<.001

X1: Problem drinking behavior X2: Perceived stress
X3: Depression

3.5 대상자의 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입력(Enter)방식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검정하였다. 주요 변수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측정하였으며, 절대값은 모두 3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세 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724로 자기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가 0.1 이하이거나 분산팽창지수(VIF) 값이 10 이상의 값은 보이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향력 분석을 Cook의 거리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95개 중 1.0 이상인 개체는 없었다. 또한 잔차 분석 결과 모형의 선형성(Linearity)이 확인되어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충족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문제음주행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와 문제음주행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 변수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이들 변수에 대한 문제음주행위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22.37,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37로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를 37%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 요인은 우울($\beta=.42, p<.001$)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성별($\beta=-.22, p<.001$), 학업 성적($\beta=-.13, p<.05$), 주거유형($\beta=-.10, p<.05$) 순으로 나타났으며, Table 5와 같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in problem drinking behavior of subjects

	B	β	t	Adj. R^2	F
Perceived stress	.16	.09	1.65	.37	22.37**
Depression	.38	.42	7.42**		
Gender	-4.01	-.22	-3.99**		
Grade	-.68	-.08	-1.46		
Academic performance	-1.45	-.13	-2.49*		
Religion	-.60	-.08	-1.56		
Type of residence	-1.03	-.10	-2.10*		
Smoking	-2.14	-.10	-1.96		

* $p<.05$, ** $p<.001$

4. 논의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이고 대학 입학과 함께 알코올 구입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음주문화는 이미 대학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적으로 대학생의 음주문제는 일반 성인에 비해 매우 심각하며 폭음의 경향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3]. 실제 대학생들은 성인 보다 음주량이 많고 음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음주행위 또한 빈번하다[3,4]. 일부 대학에서는 절주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음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내 음주행위에 대한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대학은 매우 부족하다.

문제음주행위는 지나친 음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신체적인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업 수행과 사회적 기능의 손상, 폭력이나 대인관계 문제 등 사회심리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1,2,5], 대학생 시기의 음주습관은 성인기 음주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학생들의 문제음주행위에 대한 영향 요인의 파악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방안의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문제음주행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학년, 학업 성적, 종교, 주거유형, 흡연여부 그리고 문제음주행위와 상관관계를 보인 스트레스, 우울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 문제음주행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모형은 문제음주행위를 37% 정도 설명하였으며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대상 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성별, 학업 성적, 주거유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문제음주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인 취약성으로서의 우울은 문제음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 수준에 따라 문제음주 정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한 여러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다[6,8,9]. 청년기의 대학생들은 스스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우며 슬프거나 불안한 우울 상태를 잊기 위해서 음주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의 문제음주행위를 줄이고 이후 성인기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는 대학생의 우울 정서를 낮추어 줄 수 있는 맞춤형 대학생 상담이나 건전한 음주문화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스트레스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으며 추후 대상자 수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6].

본 연구결과 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성별 차이는 남성이 여성 보다 문제음주행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성별은 문제음주행위의 예측 요인으로 보고되었고 여성에 비해 남성의 문제음주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9]. 제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자 대학생 보다 남자 대학생의 음주 빈도, 음주량, 음주효과기대가 높고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7]. 또한 남자 대학생의 음주문제가 여자 대학생의 음주문제 보다 심각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3]. 문제음주행위에 대한 성별차이는 우리나라의 남성의 음주에 대한 관용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남자 대학생들이 음주행동에 노출되는 경향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는 여학생들보다 사교적인 모임이나 친목활동의 방법으로 음주의 과정을 포함하는 경향이 크다. 음주의 빈도와 음주량이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고려해 볼 때 남자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음주를 배제하고도 만족스러운 친목활동이나 사교모임 등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기법 향상을 도울 수 있는 학생상담프로그램의 참여나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의 참여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남녀 대학생의 음주수준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의 경우 이는 천안지역의 1개 대학의 대학생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지역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점차 여학생들의 음주가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향후 반복연구와 남녀 특성을 고려한 절주 교육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15].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학업 성적은 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성적이 낮은 대학생들이 높은 학생들 보다 문제음주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전 연구에서도 학업 성적은 문제성 음주에 유의한 영향 변수라는 결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3]. 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음주에 대한 절제력이 더 강한 것을 나타냈으며[10], 본 연구대상자와 같은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대상으로 일반 음주 그룹과 문제 음주 그룹을 비교한 결과 문제 음주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대학생활의

적응이 낮고 역기능적 신념이 많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였다[16]. 이는 대학생들의 지나친 음주가 수업결손이나 학력저하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의 적응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시사한다. 대학생들의 올바른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내 학생생활상담센터 전문가를 통한 음주문제 상담의 개입, 대학 내 알코올 판매의 금지, 음주를 포함하는 학교 행사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허가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 그리고 절주 교육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낮은 학교성적이 문제성 음주의 원인이 되는 지 혹은 문제성 음주의 결과에 의해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주거유형은 문제음주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택과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문제음주행위가 기타 친척집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다 낮았다. 대학생의 거주형태와 관련하여 부모음주문제와 가족의 지지는 대학생의 문제성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3]. 대학생들은 인생의 발달 단계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처음 부모로부터 독립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며 음주에 대해서는 술을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지지를 얻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숙사에서 거주하며 친구의 지지를 받거나 혹은 기숙사의 사감 선생님이나 기숙사의 엄격한 규율에 의해 환경적인 관리가 될 경우 문제음주행위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 예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주목할 만한 결과로 생각된다. 최근에 발표된 음주산행금지, 음주산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계도기간을 거쳐서 본격적인 단속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추후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에 있어서도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만연한 문제음주행위에 대해 우리사회의 적극적인 개입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지각된 스트레스 및 우울이 문제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대구·경

북 지역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성별, 학업 성적, 주거 유형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우울을 예방하는 사회심리적인 접근과 함께 성별, 학업 성적, 주거유형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추후에는 대학생의 문제음주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와 경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구조모형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M. A. Elliot & K. Ainsworth. (2012). Predicting university undergraduates' binge-drinking behavior: A comparative test of the one-and two-component theories of planned behavior. *Addictive behavior*, 37(1), 92-101. DOI : 10.1016/j.addbeh.2011.09.005
- [2] P. Norman. (201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binge drinking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Assessing the impact of habit strength. *Addictive behavior*, 36(5), 502-507. DOI : 10.1016/j.addbeh.2011.01.025
- [3] W. C. Jeong. (2006).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impact of psychosocial factors on problem drinking among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1), 347-371.
- [4] Y. M. Kho, M. H. Hyun & J. S. Park. (2009). The mediating effect of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restraint and drinking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Psychoogy: Health*, 14(4), 891-909. DOI : 10.17315/kjhp.2009.14.4.012
- [5] H. M. Yoon. (2000). Drinking behavior and factors that influence alcohol use among university students.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3, 1-15.
- [6] W. W. Shin. (201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vulnerability factors on alcohol problems: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drinking motives.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1(3), 81-105. DOI : 10.16881/jss.2010.07.21.3.81
- [7] C. Y. Nam. (2008). The relations of stress, drinking trait, and problem behavior after drinking among the college students in Jeju.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12, 27-47.
- [8] H. N. Kim, H. R. Kim & Y. S. Choi. (2013).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al alcoholism on problem drinking and eating problem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4(1), 61-72.
- [9] M. Y. Kim. (2017). Analysis for factors of predicting problem drinking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5), 487-494.
- [10] J. G. Kim. (2009). The effect of religiosity on adolescent's alcohol us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3(5), 245-274.
- [11] K. H. Suh. (2012). Problematic alcohol use, motivation for alcohol use, and smoking motives among male college students with concurrent use of alcohol and cigarette.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3(2), 99-111.
- [12] J. E. Lee. (2005). *The effects of self-complexity and self-efficacy on depression and perceived stress*. Doctoral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Korea.
- [13] Y. H. Lee. (1993). *The relations between attributional style, life events, event attribution, hopelessness and depression*.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14] H. W. Shin. (1998). *The effects of personality, drinking motivation on drinking problems*.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Korea.
- [15] J. Y. Lee. (2013). Drinking level and nicotine dependence among smoki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4(2), 21-31.
- [16] Y. B. Lee & J. K. Park. (2015).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drinking motive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n problematic drinking: Dysfunctional beliefs as a mediator.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5(2), 359-376.

조 남 희(Jo, Nam Hee)

[정회원]



- 2006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5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09년 3월 ~ 2015년 2월 : 영남이공대학교 조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건강문제, 기초건강과학
- E-Mail : jnh1063@naver.com

권 기 홍(Kwon, Gi Hong)

[정회원]



- 1990년 8월 : 영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사
- 2008년 8월 : 경북대학교 보건학과 박사
- 1991년 7월 ~ 1995년 2월 :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 1995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 관심분야 : 만성질환관리, 환경보건
- E-Mail : ghkwn@ync.ac.kr